장성군 백종원 손 잡고 청년셰프 키운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내년 3월 장성읍 기산리에 개원 음식 개발·인력 양성·창업 지원

내년 3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외식산업개 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앞두고 장성군이 '미식도 시'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읍 기산리 옛 노인복 지회관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가 내 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9월 외식 전문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지역 특화 음식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는 청년 요리사와 지역 외식업 종사자를 지원해 외식산업 활성회를 이룰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 화 등이 진행된다.

올해 4월에는 ㈜더본코리아와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외식업중앙회 장성지부, 백련동 편백농원이 '청년 외식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장성 특산물을 활용한요리 제안과 청년 인력 양성을,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유통 활성화를 맡는다. 지역 외식업체는 청년 식생활 상생 공동체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는 청년 외식업 인력 양



'청년 요리사'의 꿈을 키울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가 문을 열 옛 노인복지 회관 앞에서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성을 목적으로 한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된다.

같은 달 청년 요리사와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은 군사교육시설 상무대에 상생 급식을 제공하며 ㈜ 더본코리아가 축적해 온 단체급식 체계를 손에 익 혔다. 지난해 말에는 상무대에서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군 급식 메뉴 품평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장성을 찾은 미국 인기 요리사 에릭 리퍼트는 축령산 편백 숲에서 청년 요리사들과 '미식 토크 콘서트'를 열어 장성 먹거리 장점과 세 계 외식산업 경향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에릭 리퍼트는 뉴욕 레 베르나르딘 레스토랑수석 주방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의 관문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장성군은 남도 음식이 지닌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상품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 며 "외식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요리사, 외식업 종사자들을 여러모로 지원해 음식과 관광을 접목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반값 여행' 모든 관광객으로 대상 확대

내일부터 '반값+드림 강진' 시작

'강진 반값 여행'을 오는 11일부터 가족 단위뿐 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강진군은 여름철을 맞아 수국길 축제와 마량 바다낚시 등 다양한 관광·해양레저 행사를 마련했다.

강진군은 '2024 누구라도 반값+드림 강진' 행사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강진군이 도입한 '반값 관광'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 절반을 지역화폐(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1인 또는 2인 이상 사전 신청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이 신청할 때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2인 이상 신청 때는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누구라도 반값' 행사는 이달 11일부터 8월31일 까지 진행한다. 여행하기 사흘 전까지 강진 반값 관광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여행이 끝난 뒤 7일 안에 정산 신청을 해야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달 6일까지 진행한 '2024 반값+ 가족 여행 강진'에는 5425개 팀 1만5115명이 참여했다. 강진 반값 여행의 흥행에 힘입어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달 말 기준 154만명에 달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름 휴가철 강진 반값 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민·관합력이 절실하다"며 "지역민과 향우들의 협력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사들이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여성들을 상대로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화순군 취업 지원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화순군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찾아기는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새일센터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10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48명의 여성이 구직 등록해 '새일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을 진행하고 있다.

'찿아가는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 사가 유동 인구가 많은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전통시장 등을 찾아간다. 현장에서 새일센터 교육 을 홍보하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한다.

화순 새일센터에서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 교육 훈련, 집단 상담, 동행 면접 등 취업지원을 비롯한 사후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새일센터 이용자들은 '찾아가는 온기나눔 취업지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환경모니터링 위원회 출범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상생협약 주민 소통 창구 마련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현안 대응과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소통 창구가 개설됐다.

나주시는 지난 5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나주 열 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 출범 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6월 나주시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의 하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안상현 나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대표 주민 7명, 전문가 4명, 시와 한난에서 당연직 4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모니터링 위원회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 방안 논의, 환경 분야 현안 대응과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농도 등 발전소 운영 정보 공유 창구로 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에 힘쓸 계획 이다.

앞서 나주시는 한난과의 상생발전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7월부터 SRF(고형연료제품) 월별 사용 용량, 발전소 가동 현황, 사후환경영향조사 결



안상현 나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출범식을 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과 등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한국환경 공단 공개시스템을 통한 TMS(굴뚝측정기기) 측 정 결과도 공개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위원회 출범을 계기

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발전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고추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

영농철 병해충 예찰 활동 강화

장흥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의 병 해충 및 바이러스 예방 기술지원 등 맞춤형 현장 영농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으로 고추 바이러스 발병 율이 증가했지만 확산이 빠르고 뚜렷한 방제약이 없어 신속한 제거를 위한 바이러스 조기 진단이 중 요해졌다

고추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등을 방치할 경우 고추 생산성과 품질에 피해가 크다. 2차 전염을 일으키는 병든 포기는 신속히 제거하는 등 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장흥군에서는 병해충 예찰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바이러스 감염 의심주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으로 방문한 고추 재배 농가에 무료 진 단키트를 배부하거나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진단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원예과학영농 병해충 진단실에 서는 고추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꽃가루 활력 검사, 증류수 제공, 화아분화 검사 등 다양한 과학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를 맞이해 직접 찾아가는 영농지도를 통해 농업현장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고, 장흥군의 농업 발전과 수준 높은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